

1. 섭리의 뇌, 선생과 네 뇌의 연결이다.
2. 70일 조건기도를 통해
휴거의 근본을 찾아 이루어라.

작성일 : 2013. 09. 07(토) AM 4시

작성자 : 주청해

(마음이 복잡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성자께서 월명동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도착 전부터 “도착하면 꼭 감람산 오르자.” 하고 재촉 하셨는데, 막상 감람산에 올라 대화하니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 있었던 것 아니에요?”하고 성자에게 여쭙더니 “내게 지금 크게 찬양 영광 돌려 줘.”하셨습니다.

그때 감람산 정자에는 기도하는 몇 사람들로 인해 조용했고, “여기서 못 하겠어요, 자연성전 가서 해 드릴게요.”하니

“그럼 자연성전으로 내려가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성전으로 내려가 찬양을 드렸는데, 만족할 만큼 하지 못했고, 성자께서는 역시 별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 날은, 조건과 대가라는 주일말씀이 떨어진 날이었고,

70일 조건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날이었습니다.

후에 서울로 올라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해주실 것이 있는지 여쭙었지만, 말씀하실 것 같으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기다리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벽기도 중에, “충명하게 졸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의 차원을 높이는 조건 세우자. 조건이 차야 해.”하시며 계속 노력하여 새벽기도를 하게 하셨고, 조건 대가 말씀 주간 마지막 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 70일 조건기도 기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성자의 말씀 *

조건과 대가

천륜의 법칙이자, 휴거를 이루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하늘의 원리 원칙.

이번에 어느 정도의 조건을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차야 그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것을
네가 직접 느끼길 원했던 것이다.

그간 선생 조건으로 깊은 계시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네 조건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네가 조건을 쌓아 받기를 원했단다.

그래서 감람산을 오르게 했고,
나에게 찬양으로 크게 영광 돌리라 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시간을 지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본 후,

이리 말씀을 주는 것이다.

완전한 선생 조건과,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너의 아주 작고 작은 조건을 통해 말씀을 전하니,

너는 제대로 받아 섭리에 전하고

너 역시 크게 충격으로 듣고

휴거를 이루는 데 힘쓰자.

70일 조건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너희의 휴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란다.

왜냐하면, 대가로 휴거를 확정 받는 기도이기 때문
에,

어떠한 조건을 쌓아야

휴거라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이 기도 기간을 통해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로 조건을 받으라 함은,

네 주관으로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굵어서 부스럼이 되는 경우는,

너는 시원하고자 해결하고자 굵었는데

절대 굵지 말아야 할 경우였다는 것이다.

너희 각자가 휴거를 앞두고

굵지 말아야 할 것을 굵고,

굵어야 할 것을 굵지 않고 있으니,

나 성자가 알려 주겠다 소리치며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로 물어라.

네 영의 휴거를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할지,

선생의 뇌와 연결하여 답을 찾아라.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답을 줄 것이다.

(선생님의 뇌와 연결하라고요?)

그래.

선생의 뇌 속에,
네 휴거의 답이 있으니까.

(뇌끼리 어떻게 연결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희의 체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뇌이지.
뇌를 통해 휴거체질을 만들어 유지하지 않냐.
선생의 뇌와 연결하라는 말을 자세히 생각하자.
휴거의 답이 선생에게 있다 함은,
선생은 ‘섭리사의 뇌’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의 세계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영적 통로를
네 육적 지체 가운데
창조해 놓았고,
알다시피 이가 바로 뇌이다.
뇌를 통해 깨닫고,
뇌 시력을 통달하여
보이지 않는 영과 혼에 대해
배우고 알도록 해 놓았고,
뇌에 나의 말씀을 넣어 성장시킴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가르친다.

선생은 섭리사의 뇌,
말씀이 떨어지는
최초의 나의 육 지체이다.
선생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주 작은 역사 하나도
절대 이를 수가 없으며,
절대 진리의 통달이 불가능하다.
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실이 불가능하듯 말이다.
고로 선생은 섭리의 뇌,
모든 이들의 뇌의 근원인 것이다.

뇌를 고쳐야
네 체질이 고쳐지고
굳어진 습관들이 고쳐진다.
네 뇌가 선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할 것은 바로,
‘뇌에 하늘 사상 무한 주입’이다.
말씀과 기도로,
네 뇌에 하늘 사상이 팍 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뇌 체질 단련이다.

전능하신 성삼위는
너희의 뇌를 통해 하늘 정신을 주입한다.
이것은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지.
오직 선생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선생을 위해 기도함으로,
뇌가 하늘 사상으로
팍 차게 만들어라.
이것이 선생의 뇌와
너희의 뇌를 연결하는 1차적 조건이다.
선생이 너희의 휴거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뇌가 굳어 체질이 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네 뇌에 하늘 사상을 주입해.
대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의무적인 책임분담,
1차적 조건이 필요하다.

잘 들어 봐라.

조건에는

1차적 조건과 2차적 조건이 있다.

내가 설명해 줄게.

1차적 조건이란,

네 휴거를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구체적 조건을 얻기 위해 세우는

1차적 책임분담,

실천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이때, 뇌에 하늘 사상을 무한으로 주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2차적 조건이란,

1차적 조건이 목적하는 조건이다.

즉, 구체적으로 네가 행해 세울,

네 휴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줄게.

네가 휴거 100선을 넘기에
 1퍼센트가 부족하다 하자.
 그러면 네 휴거를 위하여 채울
 1퍼센트의 조건은
 2차적 조건이 될 것이고,
 그 1퍼센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며 쌓는
 너의 조건은
 1차적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조건은 조건이고,
 조건은 대가가 된다.
 무슨 말이나면,
 조건 또한 내가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조건을 내 주관으로 받는다면,
 조건이 아니라 주관이지.
 네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쌓는
 과정 중의 조건 또한
 내가 주는 귀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번 조건의 기도는
 너희에게 있어 1차적 조건이 되어,
 휴거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귀중한 기도가 될 것이며,
 과정 중에 빠르게
 꾸준히 선생과 뇌를 연결한 자는
 이 70일 조건의 기간 안에
 네 휴거를 확정 지을
 근본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
 2차적 조건까지
 모조리 이루며 갈 것이다.
 이 기간을 통해 답을 찾아라.
 조건은 답이다.
 답을 찾아 이루어야
 대가를 얻는다.
 그러니 조건은 대가이고
 대가는 조건이다.
 확실한 답이 되는 조건을 얻어
 휴거라는 대가를 얻기 위해,
 너희 모두가 기도로 쌍심지를 켜고
 1차적 조건을 세워야 할 이 때이다.
 이 기간은 내가 작성하고 부여 주는 기간으로,
 하늘과 사탄의 세계를 경계에 두고,
 휴거라는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귀중한 기간이 될 것이다.

선생을 정말로 귀하게 보라.
 조건 표적 역사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표상 표적 역사’이다.
 조건을 세운 자는
 그것의 기준이자 표상이 되고
 주인이 된다.
 그를 통해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는 표상을 통해 섭리하는
 하늘의 커다란 법칙이다.
 표상을 세우고,
 나머지를 표상같이 만드는 것
 이는 참으로 귀한,
 하늘의 총명함이 깃든 영적 지혜이다.
 그러니 내가 만들고 세운
 표상을 닮아라함은,
 나의 역사 안에 녹아져
 하나 되라 함이고,
 곧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 함이다.
 ‘선생을 닮으라.’,
 ‘선생과 일체 되라.’ 하니,
 ‘이야, 선생님이 정말 완벽한가 보다.’뿐인
 낮은 차원에서
 더 이상 깊게 생각 못하는 자들도 있다.

선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는 내가 만들어 세운 표상,
 내 역사의 핵심,
 내 역사 행보의 근본이 되는 뇌와 같기에,
 그가 뇌라면,
 섭리역사와 섭리인은
 뇌의 이름인 마음과 같기에
 뇌를 연단, 즉 선생과 통해서
 선생으로 너를 만들라는 것이다.
 섭리의 뇌는 이미 완벽한데,
 섭리의 마음인 너희는
 그 뇌를 따라하지 못하니 회한하지?
 뇌가 만들어지면
 마음을 주관한다 했는데 말이야.

그는 근본적인 뇌요
 그 근본을 통해
 네 육체의 뇌를 단련시켜 놓지 못해서이다.

이미 표상 뇌가 있으니 따라하면 돼.
그래서 쉽다.
그를 따라서 해.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것이 내 역사의 핵심이다.
선생과 일체 되는 과정 중에
1차적 조건을 지나
2차적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2차적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1차적 조건인 이 기도 기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까지 이야기했어.
깨달았느냐?

선생을 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 휴거 핵심의 기도가 되리라.
섭리의 뇌, 선생은
지금 온 마음 육신 영을 쏟아
너희의 휴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 뇌를 공략하며
뇌 만들어진 대로 따라가라.
선생을 공부하는 자,
선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빠르게 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깨닫고 휴거되길
진정 원한다.

사랑한다.
너의 뇌, 표상되는 선생을 먼저 만들어
그를 통해 모든 것을 부어주는
사랑의 성자이다.
사랑한다. 살롬.